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물로 의인화된 인간의 심성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민경

동물로 의인화된 인간의 심성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민경

# 인 준 서

김민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예술가에게는 많은 자유가 부여되어 있고, 표현할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는 자유도 그중 하나이다. 본인이 표현한 작업세계를 통하여 무의식을 직면하고 자신을 분석하는 과정을 논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상적인 사회란 사회에서 지정한 적정시기에 맞게 원하는 바를 이행 했을 때, 삶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 안에 살아가면서 사회가 지정한 적정시기에 맞게 학업, 취업, 결혼, 등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원하는 위치에 오르려면 경쟁을 해야 하며, 사람의 외모나 학벌, 능력까지 동일한 목표를 세우게 하고 경쟁을 부추긴다. 또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목표를 동일하게 구분지어 놓고 그들만의 사회와 시스템을 만든다.

이러한 동일한 방향의 목표를 서로 지향하면서 경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쟁 속에 인간관계는 갈등을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크게 대두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회 속 구성원들을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확립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 안에서 목표와 지향 점은 다르지만, 목표를 균일화 시키려는 과정에서 자아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아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클수록 자아의 감정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욕구의 불만이 생겨난다. 이러한 욕구의 불만은 자아의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무의식의 불안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불안감이나 억압된 감정을 극복해 나가려는 자아의 노력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인 방어기제의 승화 형태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억압된 감정을 본능적인 동물의 이미지로 승화시킴으로써, 예술적 표현행위를 통해 억압된 몸에 자유를 부여하고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며,

자아의 만족과 불안감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과정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객관적 시점의 사실적으로 묘사한 동물화가 아닌 주관적 시점으로 자신의 감정을 동물에 이입하여 그린 팔대산인의 사의적 표현을 빌려와 설명하였다. 본인작업에 소재로 삼는 동물과 동물들의 세계는 인간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 한다. 정글에서의 법칙 적자생존, 약육강식과 같은 생존의 법칙이 인간사회 속 구성원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동물에게 인격체를 부여한 의인화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고 인간사의 다양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동물의 이미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내면을 상징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표현 방법으로는 무의식의 세계를 우연의 효과를 통해 화면에 나타내었고, 그러한 우연성의 개입은 내재된 심상의 표현을 통해 본인의 작업세계로 접근하여 연구해 보았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	3
1) 자본주의 사회의 욕구와 갈등	3
2) 불안의 방어기제	10
2. 작품 표현 연구	14
1) 팔대산인의 사의적 표현	14
2) 동물의 표현으로 상징된 의인화	16
3) 우연적 기법에 의한 표현	21
3. 작품설명	23
III. 결론	45

## 참고 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응시, 장지에 채색, 112×162cm, 2012.....	23
【작품2】 Deer, 장지에 채색, 45.5×38cm, 2011.....	25
【작품3】 침묵, 장지에 채색, 117×91cm, 2012 .....	27
【작품4】 여유, 장지에 채색, 45×38cm, 2012.....	29
【작품5】 삼채부, 장지에 채색, 130×170cm, 2012.....	31
【작품6】 숨죽이다, 장지에 채색, 60×73cm, 2012.....	33
【작품7】 으르렁, 장지에 채색, 117×91cm, 2011.....	35
【작품8】 외로움, 장지에 채색, 91×117cm, 2013.....	37
【작품9】 무거운 비, 장지에 채색, 208×147cm, 2013.....	39
【작품10】 불현 듯 다가온, 장지에 채색, 208×147cm, 2013.....	41
【작품11】 불필요한 기능의 무력함,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3 .....	43

## I. 서론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sup>1)</sup>는 예술가들은 억압된 감정이나, 불만이 예술을 통해 구현되어 욕망과 내적갈등을 직면함으로써 자신을 분석하고, 현실로부터 보호하고 치유하는 특성을 이야기 하였다. 본인 또한 무의식의 불안과 불만이 삶의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 생겨났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팽배해 짐에 따라 사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치들을 생산해 낸다. 처음의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 했으나 지금의 자본주의는 인간을 획일화된 기준, 상품적인 기준으로 평가 한다. 사람의 외모, 성적매력, 학벌, 스펙 등이 상품화 되고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집단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열이 매겨지고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적인 구도를 만들어 간다. 가족, 학교, 회사 등 다양한 구성원 안에서 원하는 역할의 기준이 있으며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며, 본인 또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타인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지향점의 방향이 달라서 오는 압박과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구성원 안에서 의견 불일치나 대립의 상태가 되어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로인해 불안하고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

---

1)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 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 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또한, 그는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자유 연상, 치료 관계에서 감정 정이의 이론, 그리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 치료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영역을 이드(id), 초자아(superego)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여기서 이드는 본능적인 생체 에너지로 리비도(ribido)의 원천 이자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는 쾌감원리, 즉 본능(instinct)이다. 이드라는 요소는 도덕, 선악, 논리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최초의 본능과 본성을 지닌 영역이자 시간관념이 없고 무의식적 이어서 정신의 최 아래의 영역이다. 특히 이 이드는 인간의 태어날 때 모두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장하면서 이드의 일부가 다른 세계와 접촉, 교류, 진화하면서 자아, 초자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위키백과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들어 이야기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함을 살펴보고, 불안이나 갈등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억압된 감정을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건전하게 외부세계에 발산하는 과정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중 하나인 방어기제의 승화 개념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작품의 표현연구에서 순수한 감상을 떠나 개인의 주관적 상징성을 갖게 되는 사의적 표현의 대표작가인 팔대산인을 연구해 보았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규제의 대상에서 자유롭고, 동물들의 본능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많은 유사성으로 어떻게 동물이 의인화 표현에 적합한지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그리고 동물의 본능과 인간 본능의 유사성을 찾아보고 동물과 닮은 인간의 본능을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 작품에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 물감 불기의 우연적인 표현방식을 통하여 무의식적 내면세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

#### 1) 자본주의 사회의 욕구와 갈등

예술가들이 왜 창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신분석적 답은 한마디로 불만이 예술을 낳았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리비도<sup>2)</sup> 이론에서 예술창조의 힘이라는 것이 과장된 억측이라고 비난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술가들이 그들의 환상을 예술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보호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불만(discontent)은 정신분석에서 욕동(drive)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욕동(drive)이 무의식적 에너지라면 불만은 인간이 의식하는 현실과 이상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 욕망이던 의식적 불만이던 예술은 불만의 미적 표현이다. 즉 환상은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생겨난다.<sup>3)</sup> 또한 프로이트는 이러한 불만과 억압된 감정은 그림을 통하여 무의식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언어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때 행동과 증상, 자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하였고, 욕망과 내면의 갈등을 직면함으로써 자신을 분석하고 보호하는 특성을 이야기하였다. 예술작품 분석의 정신적인 가치는 그것이 예술가들의 무의식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자기분석’, ‘자기 인식의 확장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해석한다. 본인은 작품 속 자기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직면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영위하는 삶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왜

---

2) 리비도 [Libido] 정신분석학 용어로 성본능(性本能)·성충동(性衝動)의 뜻 [네이버 지식백과]

3) 강경선, 『승화로서 예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0, p.27

불만과 불안이 생겨났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누구나 하나의 존재로서 삶을 살고,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과 영역들로 자아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딸’ 처럼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리게 되는 귀속지위보다는 회사원이나 학생 등 내가 노력하여 스스로 성취하게 되는 성취 지위는 더 늘어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다. 학생이라는 지위에는 교칙을 잘 지키고 공부를 하는 등의 역할이 요구되고, 회사 안에서 주워진 지위에는 지위만큼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이란, 사회가 늘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조화로운 세계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는 내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교육받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회에서 지정한 적정 시기에 따라 진학, 취직, 결혼, 출산, 은퇴 등을 수행했을 때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행복과 안정’을 제공한다. 4)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알게 되고 경험하는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정해진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갖게 되는 갈등들과 불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근대사회의 출현은 인간이성을 통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 사회조직의 합리화, 과학기술의 발전, 생산력의 증대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물질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보았고 결국 이것은 보다 나은 사회를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근대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산업혁명과 경제적 관계의 자본주의적 재편과 맞물려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양상은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근대사회의 형성을 자본주의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근대사회 형성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적 영역에서는 생산, 운송, 분배하는 기술과 생산의 규모 등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신

---

4) 정지우, 『분노사회』, 이경, 2014, p28

대륙의 발견, 정치적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 이 같은 변화는 국민국가(nation-state)를 단위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품 산출량의 증가 그리고 생산관계는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과 노동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재편되었다. 사회, 정치적 측면으로 보면,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봉건적 신분제가 철폐되고 이들 근대사회의 계급구조는 생산수단을 전유(exclusive possession)한 자본가(capitalist)와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분화되었다. 이후의 자본주의적 가치는 근대적 가치로 근대사회의 형성이란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형성이란 문제와 동일하게 간주되는 경향이 있게 되었다. 근대적 특성이 자본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같은 근대적 가치는 산업화, 자본축적의 확대재생산, 그리고 경제적 발전과 같은 소위 근대화의 문제로 변화되었다.<sup>5)</sup>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sup>6)</sup> 시스템이 팽배해 짐에 따라 사회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가치들을 생산한다. 학벌주의, 경쟁사회, 약육강식,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퇴폐주의 등은 우리사회전체를 몰락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들의 예이다.

자본주의는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키는데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는 초기에는 주로 사람의 노동력을 상품화했으나 점차 사람의 외모, 성적 매력, 각종 능력등도 상품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서 노동력과 같은 일부 속성이나 능력만을 따로 떼어 상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를 상품화 한다고 봐야한다. 이때 자본주의가 원하는 상품화는 프롬(Fromm, Erich, 1900~1980)이 지적했듯이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는 인간형을 지향한다. 사회적 평가기준이 자본주의적 상품가치에 의해 획일화

5) 홍영용, 『모더니티,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2, p.8~9

6) 자본주의 [capitalism, 資本主義]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네이버 지식백과]

되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의로움이나 선량함 같은 특성들은 무시하고, 사람을 오로지 돈과 외모 같은 상품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렇게 획일화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자신이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한낱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된다. 결국에는 ‘기꺼이 상품이 되겠어요.’, ‘잘 팔리는 상품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노동력은 팔려 인격적 모독이나 인격의 상품화만은 용납하지 않으려 했던 과거의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인간형이다.<sup>7)</sup>

모든 사람이 타인들을 상품으로 대한다면, 달리 말해 상품적 가치를 기준으로 대한다면 비교란 곧 ‘순위 매기기’가 되어버린다. 마치 상품에다 가격을 매기듯이 사람의 상품가치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것이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집단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구성원 사이에 서열이 매겨지기 마련이다.<sup>8)</sup>

아무리 자본주의라고는 해도 과거에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경쟁적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sup>9)</sup>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변질시켰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고 상품가치에 따라 평가하면서 서로를 저울질 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즉 경쟁적이지 않은 인간 관계가 거의 사라졌을 때부터 모든 비교는 심적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7) 김태형, 『불안 증폭 사회』, 위즈덤 하우스, 2010, pp.170~171

8) 일레인 N. 아론(Elaine N. Aron), 『사랑받을 권리』, 웅진지식하우스, 2010, p20

9)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두산백과]

원칙적으로 자존의 욕구는 사람의 상품화가 아닌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갈망한다. 사람의 사회적 가치란 상품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기여도에 의해 규정되는데, 사회에 제대로 기여하려면 이타적이고 정의로운 인격체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가치가 온 사회를 뒤덮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와 상품적 가치를 혼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헛갈림은 사회집단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한층 심해진다. ‘나는 사회에서 버림받기 싫어. 사회가 원하는 게 뭐지? 아, 그렇지! 학벌과 스펙이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원하는 상품이 되어야만 자신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본성적 욕구에 편승해 그것을 이용하고 변질시키는 병리적인 수법을 통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적 가치를 상품가치로 착각하는 사람은 비교에 의해 자신이 타인보다 상품가치가 더 낮다는 걸 알게 되면 몹시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이 문제에 대해 『평등해야 건강하다 The Impact of Inequality』의 저자인 리처드 윌킨슨(Richard G. Wilkinson, 1943)은 단지 물질적 생활수준만이 아니라 멸시 당한다는 느낌, 열등하다는 느낌, 자기 일에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느낌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생기는 모든 사회적 감정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즉 어떤 사회에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주의적 비교가 있는 한 그 누구라고 건강한 마음과 삶을 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sup>10)</sup>

본인 또한 가족들이 나에게 갖는 기대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입시경쟁을 치루고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또 다른 스펙이나 커리어를 쌓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현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러한 ‘객관적 측면’에 종속당할수록, 개인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과정을 따라가는, 자율은 없이 그저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자신을 느끼게 된다.<sup>11)</sup> 자신의 삶에서 무시

10) 김태형, 『불안 증폭 사회』, 위즈덤 하우스, 2010, p172~173

11) 정지우, 『분노사회』, 이경, 2014, p126

와 박탈감을 피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현실에서의 소속감을 얻으며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려면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시스템에 맞게 끊임없이 훈련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를 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들과 각자가 소속한 사회 및 집단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며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란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심리적 관계, 대인관계, 인화(人和)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인간과 인간의 심리적 관계로서 인간관계는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이 자연인 상호간에 형성되는 일정한 심리적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한편 대인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인간관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면하는 경우에 개인의 언행과 태도에 관심을 갖고 형성되는 상호관계이므로, 개인과 개인의 교양과 개성(personality) 수준의 정도 및 대인적 교섭과 수용태도에 치중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12)

개인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비교를 통해 동기나 목적의식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갈등과 긴장을 하게 된다. 갈등은 한 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에 추구하는 목표의 방향이 달라서, 즉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적대시 하거나 대립하는 상태를 말한다. 노사분규가 대표적이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등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부족으로 인한 세대갈등도 한 예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한꺼번에 충족할 수 없고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해야 할 경우 경험하는 현상인 것이다.

갈등은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 개념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Peterson, 1983)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간섭할 때 발생하는 대인적 과정’ 이라고 하였고, (Wilmot, 1978)는 ‘갈등이란 자

---

12) 고승희, 『인간관계의 갈등의식에 관한 작품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1

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대방이 방해된다고 느끼고, 자신의 목표가 상대방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으며,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이 표현하는 투쟁' 이라고 하였다. 또한, (Murray, 1968)는 '개인이나 집단이 둘 혹은 그 이상의 배타적인 행위를 하도록 동기화된 상황' 으로 보았고, (Deutsch, 1973)은 '갈등이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존재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Luthans, 1981)는 '가치관 또는 목적간의 양립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른 당사자의 목적 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감정적으로 적대시하는 행동' 으로, (Thomas, 1976)는 '갈등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상대방이 좌절시켰거나 또는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 할 때 생기는 과정' 이라고 하였다.<sup>13)</sup>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갈등의 개념들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며 겪는 갈등들에 대해 정의해주고 있다. 갈등은 개인, 집단, 조직 내 또는 이들 간의 관계에서 의견 불일치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 간의 차이가 양립하기 어렵다. 갈등은 공개적이고 유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인적이고 은폐된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갈등은 또한 개인의 퍼스넬리티<sup>14)</sup>와 성격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기도 한다.<sup>15)</sup>

사회 속에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물질만능 사회 시스템과 권위 안에서 지배당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과 생활을 시스템에 맞춰 수행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13) 손민정, 『갈등-전환기법을 통한 사회적 갈등해결이 유아의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1

14) 퍼스넬리티 [personality]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비환경적 요소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포괄적 용어로, 특성의 심리적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퍼스넬리티는 한마디로 개인을 특징지우는 속성의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 사람의 행동은 퍼스넬리티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함수라는 공식이 있다. 즉 개인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생득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특성의 차이나(혹은 상호 영향을 준다), 학습적 반응의 특성과 조직의 차이-환경의 지각 방법의 차이도 포함된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15) 박우순, 『현대조직론』, 법문사, 서울, 1996 p.383

경우가 있다. 본인은 사회가 만든 규정된 삶에 자신을 맞추려는 강박과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오는 갈등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갈등을 기반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 2) 불안의 방어기제

불안은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이며 인간의 발달과 적응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중심문제이다. 불안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며 불안하지 않은 인간은 없을 것이다. 이에 본인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앞서 알아보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불안의 감정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만나는 정서적 경험임을 알 수 있었다.

세상 경험을 심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추스르는 능력이 발달하기 이전의 어린 시절에는 사소한 좌절이나 위협에도 쉽게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심한 불안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실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아능력이 너무 취약하거나 위협적인 자극의 강도가 너무 강할 때에는 누구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이나 위협을 예상하는 반응은 인간의 생존 과정에서 적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불안은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프로이트는 “신체 내부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이 야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으로 인간이 불안발달의 지각에 의해서 불안이라는 주관적 상태로 빠진다고 보았다. 불안의 라틴어 ‘angustiae’의 원래 의미는 좁음, 좁은공간 짧음 결핍, 가난, 필요, 어려움 등으로 ‘숨을 쉬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본뜻으로 현재까지 불안개념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정서의 좁은 혹은 정서의 어려움을

---

16) 이용승, 『범불안장애』, 학지사, 2000, p.17

의미하기도 한다.

불안은 자아가 위협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임박한 위협에 대항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고에도 공포로부터 자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할 경우 스스로 절망과 무기력함을 고조시켜 정신적 불안정이나 신경쇠약으로 이어지고 심한경우는 죽음으로 몰아간다.

자아의 불안정이 심하거나 상처가 너무 크면 실제로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거나 헛것이 보인다거나 환청을 듣기도 하고 공상에 잠겨 멍해진 나머지 한순간에 주위가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들이 때로는 심각한 증상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그것은 자아 스스로 고통을 회피하거나 극복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한 수단이다. 자아가 불안을 일으키는 위협과 위협을 처리하는 일은 개인을 지키기 위한 주요 과제들 중 하나인데 자아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채택해서 위협을 직접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이것을 자아의 방어기제라고 한다.

프로이드에 의해 설명된 방어기제는, 불안이나 갈등상황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불안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책략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특성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사용이 불쾌한 내외적 현실에 전형적인 반응이 되어버리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외부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자아발달이론이 등장하면서 방어기제는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되어 비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것은 아니며 건강하고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심리적 도구로 이해되었다.<sup>17)</sup>

방어기제는 인간이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특성과 관계한다. 그것은 무의식에 있는 세 가지 자아 즉,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그리고 쾌락 원리(Pleasure principle)를 추구하려는 이드(id), 현실 원리(reality principle)의 지배를 받아 현명하게 행하려는 자아(ego), 그리고 현실적이기 보다 인성의 도덕과 양심을 대표하는 초자아(super

---

17) 조한익 · 손선경, 『고등학생의 자의식, 불안과 방어기제 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 7권 제 1호, 2010, p.22

ego)간에 비롯되는 갈등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안정화를 찾고 긴장을 감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을 야기하는 갈등과 위협을 처리하고자 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방법으로써 불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어기제로는 자아의 위협을 부정하는 ‘억압’, 위협을 외부로 돌리는 ‘투사’와 숨기는 ‘반동형성’ 그대로 머무르는 ‘고착’, 후퇴하는 ‘퇴행’, 다른 상태로 에너지가 변화하는 ‘승화’<sup>18)</sup>등의 형태가 있으며 ‘승화’는 프로이트가 언급한 방어기제 중 상당히 적응적인 자아의 방어기제로 나타난다. 승화의 개념은 승화가 갖고 있는 본 특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에너지의 변화상태를 의미한다.

승화(sublimation)는 사회에서 용납 될 수 없는 성적 욕구와 공격적인 욕구인 리비도가 용납될 수 있는 표현으로 전환되어 외부 세계에 배출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이야기 한다. 승화를 일으킨 예들은 지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예술적 추구로 에너지를 전환시킨 것이다. 그 예로 성적 욕구는 낭만적인 시로 표현되거나 공격적인 욕구는 스포츠를 통해 발산되는 것이다. 본인 또한 사회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그로인해 생긴 공격적인 욕구를 동물의 분노한 이미지와 우연적인 표현을 통해 본능적인 에너지의 원천과 목표는 변하지 않고, 긴장을 감소시켜 주는 대상의 수단이 바뀌었다. 승화는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발산하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어기제이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와의 임상경험을 통해 무의식에는 의식에서 허용하지 않은 유아기적 욕망 즉, 성적 본능과 공격적 충동이 쌓여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본능적 욕망은 문화와 예술, 사회적 창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억압된 유아기의 욕망이 본래의 목표를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도록 변형하여 이루어낸 승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예술이 유아기 초기의 체험을 간직하면서 그 체험을 자신의 예술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예술가의 창조적 욕구는 신경증 환자가 갖고 있는 증세와는 다르지 않지만, 욕망의 표출 방식에 있어 승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sup>19)</sup>

---

18) 켈빈·S홀 지음 유상우 옮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홍신문화사, 2010 p.129

앞 서 논하였듯이 ‘자아의 방어기제로서의 승화’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기제로서 원초아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발산하여 본능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적응 되어 나타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표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트는 예술을 승화라고 보았으며, 직접 표현될 수 없는 본능적 충동이 예술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욕망이나 충동과 관련한 본능적인 내용을 예술가가 생산한 창조적 결과물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개인적인 몽상과 창조적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몽상에 가까운 작가의 작품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내밀한 비밀인 것이다. 한 개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과 관련된 개인적인 몽상이 주는 거부감을 넘어서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기교 속에 아마도 진정한 시학이 존재 할 것이다.” 20)

예술가의 특별한 재능은 감상자와는 다르게 이 본능의 내용을 형식으로 정교하게 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타자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위한 배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암시한다.

불안은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 억압된 감정은 상징을 통해 승화되며, 예술을 통한 개인적 만족감이나 쾌감은 자아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카타르시스적 효과와 함께 현실이 가져다준 불안한 감정과 절망으로부터 심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

19) 강미화, 『샤갈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의 상징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Vol.7,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11 pp.78~79

20) 프로이트,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p.94~95

## 2. 작품 표현 연구

### 1) 팔대산인의 사의적 표현

전통회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원시미술에서는 인물과, 동물, 산과 나무 등 모든 것이 함께 묘사되다가 먼저 인물이 독립되어 그려져 인물화(人物畫)라는 장르가 변성하고 그 다음으로 산수가 독립되어 산수화(山水畫)로 변성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화(動物畫)도 시간이 흐르자 점차 독립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sup>21)</sup>

동물화가 순수한 감상(鑑賞)을 위해서 제작되게 된 것은 중국의 당(唐, 618~907)대에 이르러서였다. 당대 들어와 동물을 그림의 한 부속물로 처리하지 않고 동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들을 남기고 있다.

당대에 이르러서야 동물화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화풍은 대체로 객관적 시점에 의한 사실주의적 경향으로 동물의 본성 즉 자연미를 살려 최대한 기운생동(氣韻生動)<sup>22)</sup>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송(宋, 960~1279)대에 이르러서는 큰 변화를 갖게 된다. 객관적 시점에 의한 사실주의적 화풍의 동물화가 절정에 이르러 융성했을 뿐 만 아니라 그와는 달리 지금까지의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문인화가(文人畫家)들이

21) 박서림, 『동물화의 상징성과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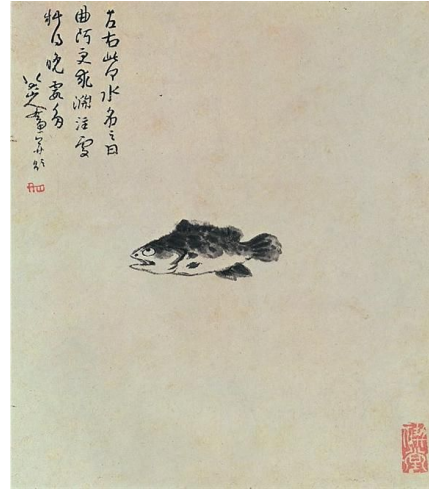
22) 기운생동(氣韻生動) 고개지 이후 사혁(謝赫)은 「육법론」(六法論)에서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제창하였다. 고개지의 「전신론」에서 신(神)의 개념이 비교적 포괄적인 것이었다면, 사혁은 신(神)을 ‘기운’(氣韻)으로 발전시켜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기운은 원래 ‘풍기운도(風氣韻度)’의 약자로 위진남북조시대 사대부들의 전형적인 풍모를 일컫는 말로 화가가 만약 이러한 풍모를 생동감있게 표현해 낼 수 있다면 바로 기운생동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당(唐)에 이르러 장언원(張彥遠)은 다시 사혁의 사상을 진일보 발전시켜 ‘형사’(形寫)의 관념과 ‘기운’(氣韻)을 같이 놓고 보는 견해를 내놓았는데, 즉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응당 기운에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기운이 표현되어 나오면 형상은 자연히 그 안에 있다 하였다. 장언원은 닮기만 하고 기운이 모자라는 작품은 예술 이하의 단순한 표지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며, 심지어는 예술이라 칭할 수 없다고 까지 하였다. 이는 바로 당나라시대 사람들의 형(形)과 신(神)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다. (동양화의 이해)

문인화풍(文人畫風)으로 그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징성을 갖게 되는 주관적 시점에 의한 사의주의적(寫意主義的) 동물화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문인 동물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인적 경향의 동물화가 등장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화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sup>23)</sup>



<도판1> 팔대산인, 《숙조도(조는 새)》  
청 1694 지본묵화담채 31.8×27.9cm  
일본개인소장



<도판2> 팔대산인, 《성난 물고기》 종  
이에 수묵 31.8×27.9cm  
교토 천옥박고관 소장

사의적 표현의 대표적 작가로 팔대산인(八大山人, 1636~1705)은 명말청초의 문인 영모화를 더욱 발전시켰는데 새로운 소재에 의해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전달하고 있다. 청(靑)의 왕조(王朝)의 대한 반항과 울분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절망과 고독 속에서도 왕족의 귀품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팔대산인의 갈등은 고조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적 고통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없었던 까닭에 회화로써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였으며 가슴속 응어리진 울분을 분출하는 표현하는 수단이었으며, 그의 회화에는 내면세계의 표출이 뚜렷한데, 자신의 내면세계를 외부대상을 빌어 표현하였다. 더욱이 그는 수묵으로 사의를 묘사하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풍부한 감정적 우의를 지니고 있고 조형미를 띠고 있으면서 구

23) 한정희, 『옛그림 감상법』, 서울:대원사, 1997, p.151

체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다. 팔대산인의 노년에 그림에 나타난 특이한 형상들은 과란만장했던 생활과 심정을 상징하는 의사전달의 조형 부호적(符號的) 형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는새》 <도판1>는 눈, 귀, 입을 막고 초연히 세속과 단절하고 있는 애절한 모습과 고고한 정신을 암시하고 있으며, 잡화집에서 볼 수 있는 이 새는 마치 복장을 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그가 병어리와 미치광이로 가장하여 이곳 저곳을 떠돌며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어야 했던 한(恨)과 청(靑) 왕조의 압박에 격분하는 심정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한쪽 발로 땅을 딛고 서있는 것은 청나라 조처의 권세와 더불어 같이 서있고 싶지 않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강렬한 분노를 상징하고 있는 《성난 물고기》 <도판2> 속에 물고기는 눈을 부릅뜨고 눈알을 치켜 올린 것이 뚜렷한 증오와 완강한 투쟁을 표출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팔대산인은 동물의 눈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감정이 입의 표현은 사실적인 동물화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풍부한 사의에 의한 표현은 그의 작품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 나무, 돌, 물고기, 새 등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고 이는 자신의 울적한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

## 2) 동물의 표현으로 상징된 의인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공통의 본성 개념에 호소했다. 그런 개념에는 인간과 동물들을 분명하게 나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와 동물 간의 모든 유사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우리는 동물들의 의도와 욕구들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들과 공통적인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동물로 파악하기도 하며, 동

물들을 의인화 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는 동물들의 굶주림과 갈증을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sup>24)</sup>

인간과 동물 모두 갖고 있는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종족 보존의 욕구인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원초적 본능이 지배하는 자연계의 동물의 세계는 생존과 번식만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세계이다. 인간 또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욕구 실현의 정도가 달라지고 욕구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욕이나 수면욕에 기초하는 개체 보존 욕구와, 성욕에 기초하는 종족 보존 욕구가 동물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적 욕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동물들의 기본적인 식욕, 수면욕, 보존욕구를 충족하기위해 숲이나 초원에 사는 동물들의 생존방식은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적자생존은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방식이고 약육강식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는 생존 경쟁에 대한 방식이다. 현대사회에서 인간들 또한 생존욕구를 충족하기위해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의 법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적자생존의 법칙은 빠르게 변화 하는 사회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면 약자로 남게 되어 버리며, 현대사회의 약육강식 형태 또한 약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구조이다. 배우자를 찾을 때나, 취업을 할 때에도 인간의 약육강식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성적매력, 외모, 재력이나 권력으로 변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나눈다.

원초적 본능으로 가동이 되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 특유의 생존수단으로 생존과 번식을 목적으로 하여 삶을 유지한다. 인간도 자연계의 일부로서, 인간이 동물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인문학적 측면의 윤리나 문화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일종의 인간 특유의 생존 수단이며,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동일시되고 다르다는 것은 단지 정신적 지성적 진화의 차이에 의한 생존 수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물을 의인화 표현에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의인화(擬人化, personification)란 인간 이외의 동물, 식물 또는 사물 등을

---

24) 로저 트리그, 『인간 본성과 사회생물학』, 궁리, 2007, p.140~141

인간처럼 묘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부여함으로써 그 의인화 대상은 새롭게 창조되며 의인화시키는 이의 대리인(代理人)이 된다. 특히 여타 다른 것들보다 동물을 의인화 하는 예가 많다. 그 이유는 의인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인간과의 ‘유사성’을 일차적으로 중요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동물이 식물이나 사물 등 보다 인간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최초의 은유는 동물이다”라는 존 버거(John Peter Berger, 1926~)의 말처럼 동물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대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까운 소재이며, 인간의 정서를 구체화시키고 의인화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과학적 연구서 『동물사(History of Animals)』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은 유사한 특질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 특질들은 인간들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낸다. 다수의 동물들에 있어서 우리는 온순함과 사나움, 온후함 또는 심술궂음, 용기 또는 수줍음, 두려움 또는 자신감, 원기 왕성함 또는 교활함 그리고 이해력에 관해서는 총명함에 가까운 것들을 관찰하게 된다.<sup>26)</sup> 이러한 동물의 본능적인 감정들은 동물들의 얼굴 표정이나, 소리, 행동자세 등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동물들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음성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지만 행동이나 얼굴표정을 통한 감정의 전달도 가능하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에 대하여』에서 찰스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sup>27)</sup>은 동물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행동과 표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육식동물은 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귀를 뒤로 젖히고 털이나 꼬리를 곤두세우며 경직된 자세를 보이며, 카멜레온이나 도마뱀은 자신의 몸을 부풀리기도 한다. 개의 경우 고개를 내밀고 좌우로 빠르게 흔드는 꼬리의 움직임으로 반가움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듯 동물의 몸

25) 김한태, 『慾.忘.起: 의인화된 토끼를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p.4

26)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0, p.19

27) 찰스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 생물진화론을 정하여 뜻을 세운 영국의 생물학자이다. 해군측량선 비글호에 박물학자로서 승선하여, 남아메리카·남태평양의 여러 섬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향해 탐사했고 그 관찰기록을 <비글호 항해기>로 출판하여 진화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59년에 진화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종(種)의 기원(起原)>이라는 저작을 통해 진화사상을 공개 발표하였다.

의 변화, 표정 그리고 걸음걸이와 자세는 동물의 감정상태를 예측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작품6]<숨죽이다>, [작품7]<으르렁>은 동물의 공격적인 또는 방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작품6]은 대부분의 육식동물이 사냥을 하기 전 취하는 포복자세로, 등뼈가 유연해 몸을 잔뜩 움츠린 자세로 사냥감을 노리거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동물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갖는 긴장감을 표현 해보았고,

[작품7]<으르렁>은 목덜미 털을 곤두세우고 윗입술을 뒤로 잡아당겨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냄으로써 더욱 위협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분노한 감정을 동물의 표정과 곤두선 털을 이용하여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동물은 기쁨, 분노, 공포, 놀람 등의 본능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동료의 죽음을 본 동물은 그 주위를 맴돌며 애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나타내거나 만족스러움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원숭이가 보이는 몇 가지표현은 인간과 매우 흡사하고 다양하다. 인간이 자신을 실망스럽게 하는 행동을 보이면 원숭이는 곧 입술을 삐죽 내밀어 튀어나오게 한다. 어린 침팬지를 간질이면 인간처럼 킬킬대고 웃기도 하고 칭찬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주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만족감을 나타낸다. 때때로 소리를 내지 않고 웃기도 하는데 원숭이의 표정과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은 인간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부분이다. 또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 할 수 있는 개는 주인의 손이나 얼굴을 핥거나 몸을 주인에게 비비는 행동으로 애정의 표현을 하며 배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복종심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9)</sup>

이렇듯 인간과 동물은 서로간의 감각의 언어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수많은 동물들과 깊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때로는 그러한 비슷한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과의 감정, 유사점과 함께 동물만이 가지는 외형적 특징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움직임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

28) 이진우,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형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11, p. 8

29) 찰스 다윈,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에 대하여』, 서해문집, 1998, pp.99~124

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러한 동물의 매력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작업의 소재로 변화하게 되었다.<sup>30)</sup>

예로부터 특징적인 동물의 속성들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었는데, 전통회화의 동물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슴은 인간의 사회처럼 위계 질서를 갖추고 군집생활을 하며, 십장생중에 하나로 의리와 도리를 상징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동물로 그려져 왔다. 소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며 주인에게 충직한 동물로 부지런함, 성실, 근면,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많이 표현이 된다. 말은 소와함께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생활해 온 가족이며,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동물로서 의리와 충절의 상징이며 전통회화에서는 통치자의 정통성과 권위, 권력, 권세를 상징하였다. 닭은 닭이 울면 새벽이 오며 이는 태양을 뜨는 때를 아는 예조능력을 지닌 동물을 상징하고 수탉의 벼슬은 우두머리나 벼슬을 상징한다. 호랑이는 사납고 포악하지만 용맹함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뱀은 음흉하고 간사함과 교활한 모습으로 비취진다. 원숭이는 재주와 꾀가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

[작품8] <외로움>은 본인의 아버지가 느끼는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예로부터 말은 권력과 힘으로 상징되고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동물로 나타난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최고의 속력과 힘으로 앞만 보고 달리지만 가족들과의 대화단절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말의 슬픈 눈으로 표현하였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그 효과를 더욱 증가시켰다.

이렇듯 동물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뛰어난 존재로서 의인화과정을 가능케 한다. 동물의 의인화란 동물들에게 인간이 지닌 특성을 표현함에 있는 것으로, 동물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의 특색의 최고점을 나타낸다. 그러한 특질은 최초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러한 동물을 통해서였다.<sup>31)</sup>

이러한 의인화의 장점은 규제의 대상에서 자유롭고 동시에 인간의 감성 표현을 표출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며, 동물은 작가의 개성과 성격에 의해 작가

30) 이진우,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형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11, pp.8~9

31)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0, p.29

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 이용하기 적절하고 예술적 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본성을 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인의 작품은 사회에서 인간 본질의 성격을 동물형상을 통해서 특징적이고 상징적으로 다양한 표현세계를 시도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심리의 표현이다.

### 3) 우연적 기법에 의한 표현

미술에서 우연성(contingency)이라는 것은 그 동안 자신이 습관적으로 해온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들을 배제하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대 회화에서 무의식의 역할은 우연성에 의한 표현을 통해 시간성과 공간성을 내면세계의 필연의 장으로 제시하였다.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는 자연적 발상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인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우연의 효과는 추상미술이 대두하면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추상회화가 성립되기까지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라 볼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무의식의 세계, 꿈, 광기, 무의식의 비합리 세계를 우연의 효과로 화면에 나타내었고, 그러한 우연성의 개입은 내재된 심상의 표현 결과라 할 수 있다.<sup>32)</sup>

본인이 사용한 우연적인 표현기법은 드리핑(dripping)이라고 한다. 드리핑은 영어로 ‘방울져 떨어지다’, ‘물방울을 떨어뜨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물감뿌리기, 불기, 흘리기라고도 하며 이 표현은 붓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지에 물감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물감불기를 통하여 지나간 자리에 생긴 형을 주변과 어울리게 그려주는 방법이다. 보통 동양화의 재료인 먹과 채색에 적합한 종이는 장지라는 한지를 사용하는데 쉽게 번지고 스며드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지의 특징은 본인의 물감불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하

32) K.Harris, 오병남 · 최현희 옮김, 『현대미술-그 철학의 의미』, 서광사, 1988, p.98

지 않아 잘 스며들지 않는 코팅한 듯 한 느낌의 아교포수가 되어있는 장지를 사용한다. ‘아교포수’란 장지란 종이위에 원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교와 명반을 섞은 혼합용액을 바탕재에 침투시켜 도포하는 것이다. 아교란 접착제로 코팅을 해주고 보풀들을 잡아주며, 안료가 정착되게 해주고 채색의 발색효과를 증대시키는 처리이다. 아교포수가 된 장지위에 먹과 발색력이 좋은 아크릴을 물감 불기를 이용해 숲의 뺨어 나온 나무모양이나 울창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고, 자유로운 뿔의 모양을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표출하기 위하여 창안된 방법으로 물리적인 운동을 이용하여 순간적인 판단과 속도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의도적인 우연의 효과는 화가나 감상자에게 의식차원을 넘어선 무의식적 내면세계를 나타낼 수 있다.

[작품1]<웅시>와 [작품3]<침묵>에서는 본인이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속에 타인들을 경쟁상대로만 간주하는 모습 표현했다. 인간 사회의 축소판인 동물들의 사회인 숲을 물감불기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이 느끼는 우울하고 무거운 사회의 느낌을 주기 위해 무거운 색감과 먹을 이용하여 여러 번 겹쳐 색을 쌓아 올렸고 운동성, 방향, 속도감을 이용해 물감불기를 하여 숲의 형상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배경과 동물의 눈 사이의 명도와 채도의 대비를 통하여 작품의 긴장감을 형성하였다.

[작품3]<Deer>와 [작품5]<삼재부>에서 물감불기를 이용해 자유롭고 웅장하게 뺨어나간 뿔은 본인에 대한 방어본능과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내면세계의 형상을 시각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내면세계를 반영하겠다는 맥락에서 우연성을 사용하였다. 우연성을 발생시키는 잠재된 이미지의 근본인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무한의 창조력이 활동하는 신비한 곳으로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 3. 작품 설명



【작품1】 감시, 장지에 채색, 112×162cm, 2012

[작품1]

작품제목: 감시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112×162cm

작품연도: 2012

시선은 타자와의 관계이고, 나와 세계를 맺어주는 기본적인 매체이다. [작품 1]은 폭력적인 시선에 대한 그림이다. 폭력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도 있지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자체로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한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은 즉 타인은 나를 물체로 만드는 사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고, 나의 세계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본인이 느끼는 타인의 시선은 ‘감시’ 라는 부정적인 해석으로 타인의 시선 속에 스스로 가지는 가치나, 의식, 잠재성을 부정당함을 표현해 보았다.



【작품2】 Deer, 장지에 채색, 45.5×38cm, 2011

[작품2]

작품제목: D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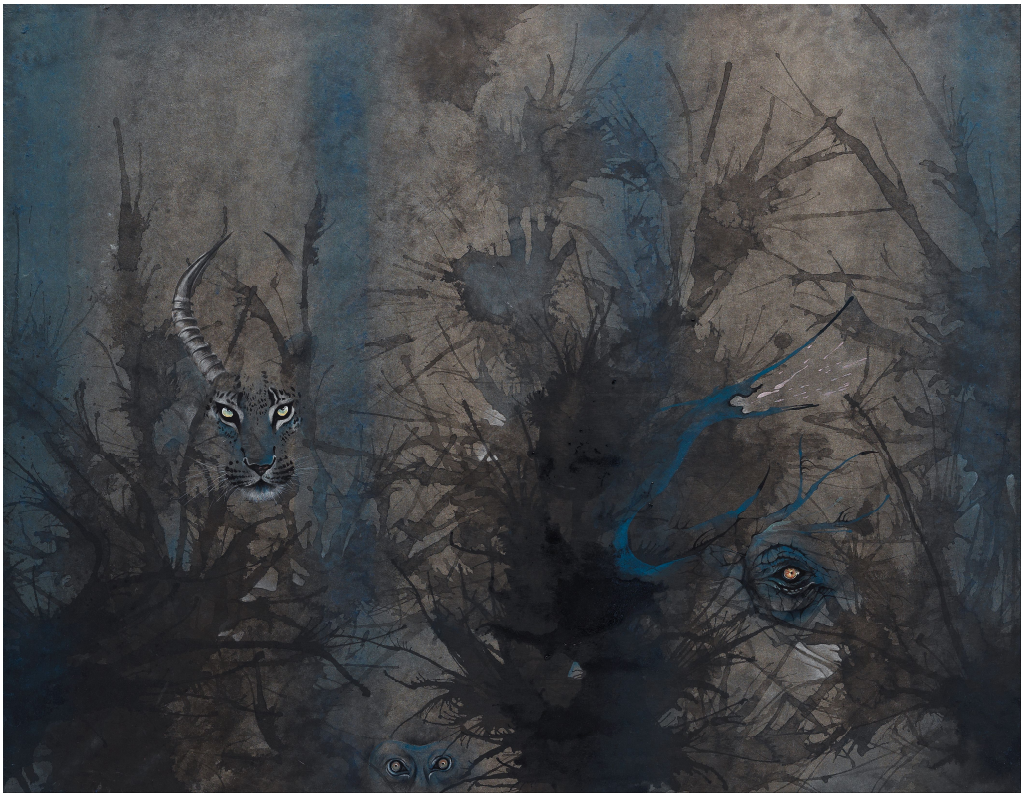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45.5×38cm

작품연도: 2011

우리 속담에 ‘뿔이 나다(뿔이 솟다)’의 표현은 대단히 화가 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는 뿔이 나는 일을 많이 접하고 있다. 고용의 불안, 언론 악법의 자행, 매학기 대학 등록금 인상, 계층 간의 경제적 불균형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날이 선듯한 뿔을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또는 공격 혹은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뿔을 먹의 불기 효과로 표현해 보았다.



【작품3】 침묵, 장지에 채색, 91×117cm, 2012

[작품3]

작품제목: 침묵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91×117cm

작품연도: 2012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의 능력만큼 배우고 벌며 재산을 축적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계층은 배우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하며 재산을 모을 수도 없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작품3]은 먹이사슬의 가상 상위층에 있는 표범은 빨을 달아 더욱 강력해 지고 힘이 세지지만 반면 먹이사슬의 하층에 있는 동물은 더욱 몸을 숨기고 작아지는 모습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작품4】 여유, 장지애 채색, 45×38cm, 2012

[작품4]

작품제목: 여유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45×38cm

작품연도: 2012

1800년경 재미있는 사냥 취미로 인해 멸종된 파란영양이다. 고기가 그다지 맛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푸른 색으로 인해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종족이 멸종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항상 불안함에 떨었을 그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았다. 본인 또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다.



【작품5】 삼재부, 장지에 채색, 130×170cm, 2012

[작품5]

작품제목: 삼재부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130×170cm

작품연도: 2012

삼재부는 삼재를 방지하는 부적을 말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9년마다 주기적으로 겪게 된다는 세 가지 재난인 삼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이다. 삼재부적은 3개의 매의 머리와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는 매의 특징으로 민첩하게 하늘을 나는 매의 날갯짓은 영공(領空)의 수호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접근하는 삼재를 막을 수 있으며, 용맹스러운 성격에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닌 매는 삼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작품5]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삼재부로 재해석 하였는데 3개의 머리와 6개의 눈으로 더 많은 재앙과 재난을 알아보고 빠른 타조의 발을 사용해 그것을 피하며 수컷을 상징하는 빨과 암컷을 상징하는 젖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종족 보존을 하는 자용동체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작품6】 숨죽이다, 장지에 채색, 60×73cm, 2012

[작품6]

작품제목: 숨죽이다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60×73cm

작품연도: 2012

[작품6]은 언제나 긴장상태로 삶을 사는 본인 또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와 힐링의 달콤한 말 뒤에 끊임없이 경쟁을 유도하는 세상이다.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사회 혹은 스스로 강요하는 끊임없는 긴장상태를 나타내었다. 물감불기의 표현으로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사회 또는 본인의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고 무기를 숨기고 조심스럽게 항상 무언가를 제치거나 이겨야하는 동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의 공격적인 모습을 상항 긴장상태로 지내야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동물을 통해 이미지화 하였다.



【작품7】 으르렁, 장지에 채색, 117×91cm, 2011

[작품7]

작품제목: 으르렁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117×91cm

작품연도: 2011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 수준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OECD 조사 결과 나타났다. 대부분 사람이 내심 자기 삶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분노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분노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만성화된 분노는 '내 삶'과 더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면의 분노를 돌연변이를 통해 표현해 보았다. 정형화된 삶에 대한 것 성이난 늑대들의 머리들 목주변에 털이 곤두서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삶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작품8】 외로움, 장지에 채색, 91×117cm, 2013

[작품8]

작품제목: 외로움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91×117cm

작품연도: 2013

높은 지위와 권위가 있고 누군가가 당신 옆에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의 형상을 통해 그려 보았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렸지만 제일 가까워야 할 가족들과의 대화단절과 그로인한 오해와 갈등들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본인의 아버지나 또는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의 대한 자화상이다. [작품9]는 빛과 그림자의 극단적인 명암대비로 외로움과 우울함을 나타내었고 말의 외형은 강하고 멋진 모습이지만, 쓸쓸한 눈빛을 통해 외로움의 느낌을 주려 하였다.



【작품9】 무거운 비, 장지에 채색, 208×147cm, 2013

[작품9]

작품제목: 무거운 비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208×147cm

작품연도: 2013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사회는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야할 기준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 기준들은 학벌, 외모, 성격, 매력까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경쟁을 부추긴다. 우리는 그 기준을 따름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이 주워 진다.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직장생활이나, 학교에서 목표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로인해 현대인은 점점 자신의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남과 경쟁관계가 되어야하며 마음의 휴식은 사치의 개념으로 여겨지는 사회에 지쳐가고 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해 열등의식이나 인간소외현상으로 점점 나약한 존재가 되가는 현상을 새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림으로 땅으로 추락해버리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작품10】 불현 듯 다가온, 장지에 채색, 208×147cm, 2013

[작품10]

작품제목: 불현 듯 다가온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208×147cm

작품연도: 2013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오늘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금지와 명령의 부정성을 철폐해가며 자유로운 사회를 자처하는 성과사회다. 성과사회를 규정하는 조동사는 프로이트의 “해야 한다sollen"가 아니라 ” 할수 있다konnenn"이다. 이러한 사회는 심리적 경쟁을 야기 시키고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하며 우리는 탈진한 자아만이 남는다고 이야기한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심연의 어둠처럼 두려운 곳을 향하여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닌 떨어지는 새의 속도감을 통해 불현 듯 본인에게 다가오는 우울증과 탈진한 자아의 느낌을 화면에 담아보았다.



【작품11】 불필요한 기능의 무력함,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3

[작품11]

작품제목: 불필요한 기능의 무력함

작품재료: 장지에 채색

작품크기: 130×162cm

작품연도: 2013

본인은 지금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며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개발하려 노력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반대로 가고 있었다. 본인의 주변사람들은 대기업이나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하여 그곳에 맞게 토익이나 토플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적성 검사에 대한 공부나 연구를 하지만 본인은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작업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 본인의 부모님이나 주변인들 또한 본인의 미래가 안정되길 원해 취업을 원하지만 본인은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작품11]은 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개의 다리가 있지만, 필요함에 따라 추가된 또 하나의 다리가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의 의한 부정적인 시선을 느낀 본인의 감정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화면 안에 담았다.

### Ⅲ. 결 론

예술가들은 불만이나 불안한 감정을 예술을 통하여 무의식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한다. 본인은 자기분석을 통해 사회가 본인에게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본인이 겪는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되짚어 보았다.

자본주의는 본래 사유재산제도를 이윤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자유경쟁 체제를 위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변질된 자본주의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팽배해 짐에 따라 현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사회가 원하는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변화하고 유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정되고 박제된 존재가 되어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나며, 그로인한 우울함이나 불안한 감정이 생겨난다. 본인 또한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경험하며 타인과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한 감정들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작업을 해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본 논문의 연구바탕이 되었다.

변질된 자본주의 사회가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는 인간형을 추구하기 시작함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기준을 자본주의적 상품가치에 의해 획일화 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을 알아보았고, 사회 속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일한 방향의 목표를 서로 지향하고 그것에 먼저 도달하기위해 경쟁적인 구도로 만들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갈등에 대해 논해보았으며, 시스템에 맞춰 수행하는 과정 중에 불안과 우울함, 좌절감을 느끼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불안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증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안이나 갈등상황에서 자아를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은 20세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의해 설명된 방어기제 중 상당히 적응적인 자아의 방어기제인 승화형태를 접근해 보았다. 승화는 성본능이나 공격본능의 에너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을 용납될 수 있는

표현으로 전환하여 나타남으로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발산하여 심리적 보상을 가져다주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품 표현에서는 삶에서 느끼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동물의 이미지를 담은 회화로 표출하고 응어리진 울분을 분출하는 표현수단으로 사용한 팔대산인의 작품을 알아보았다. 본인은 인간들의 욕구가 동물들의 욕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고, 인간들과 동물간의 유사성을 통해 의도와 욕구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과 동물사이에 공통적인 본성을 공유하고 있음에 본인은 동물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 정서적 마음을 구체화 할 수 있고, 의인화표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여 자연적 발상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인 연상을 가능하게 하며, 본인의 꿈, 이상, 현실의 세계, 본능, 무의식의 세계를 우연의 효과로 나타내었고 내재된 심상의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자본주의가 원하는 조건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경쟁의식이 생겨나고,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가족이나 주변타인에 의해 암묵적인 압박을 통해 본인의 무의식적인 불안한 감정이 생겨남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현실에서 억제된 욕구와 억압된 감정들이 동물의 이미지나 우연적인 기법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승화하면서 마음의 보상이나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본인과 관람자의 거리감을 좁혀 소통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태형, 『불안 증폭 사회』, 위즈덤 하우스, 2010
- 로저 트리그, 『인간 본성과 사회생물학』, 김성한 (역), 궁리, 2007
- 박우순, 『현대조직론』, 법문사, 서울, 1996
- 이용승, 『범불안장애』, 학지사, 2000
- 일레인N.아론(Elaine N.Aron), 『사랑받을 권리』, 웅진지식하우스, 2010
- 정지우, 『분노사회』, 이경, 2014
-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0
- 찰스 다윈,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에 대하여』, 최원재역, 서해문집, 1998
- 켈빈.S홀 지음,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유상우 옮김, 홍신문화사, 2010
- K.Harris, 『현대미술-그 철학의 의미』, 오병남 · 최현희 옮김, 서광사, 1988
- 프로이트,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 학위논문

- 고승희, 『인간관계의 갈등의식에 관한 작품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1
- 김한태, 『愆.忘.起: 의인화된 토끼를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 손민정, 『갈등-전환기법을 통한 사회적 갈등해결이 유아의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1
- 이건우,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형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11
- 홍영용, 『모더니티,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2

## 학술지 논문

강경선, 『승화로서 예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0

강미화, 『샤갈 작품에 나타난 무의식의 상징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Vol.7>,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11

조한익 · 손선경, 『고등학생의 자의식, 불안과 방어기제 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 7권 제 1호, 2010

##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두산백과

# ABSTRACT

## The Study of human Emotions Projected onto Animals

—Based on my own works—

Kim, min kyoungh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ists have a variety of freedoms, and the freedom to choose the world they want to express at their will is one of them. In this paper, I wanted to discuss the process of facing the unconscious state and analyzing myself through the works of my own.

We have an illusion about an ideal society, the one that guarantees people stability and happiness in life only if we accomplish certain things we want at an adequate stage of life. However, we end up experiencing negative aspects of our society while struggling to achieve things that our capitalism-based society requires us to, such as performing well in school, getting a job, getting married and so on. In a capitalism-based society, we are driven to compete fiercely to achieve the social status we want, and also to set similar goals in terms of looks, educational backgrounds and competency. In addition, members in society, who have similar goals form exclusive society and system of their own. As members of society pursue similar goals, heading toward the same direction, completion has been so fierce that

human relations have become rife with conflicts.

Because major issues related to human relations in modern world aim to make individuals establish similar objectives and values, in the process of doing so individual members may undergo confusion about their egos and self-identities.

The larger the gap is between our egos' ideals and realities, the more conflicts and discontent we undergo. Such discontent can manifest itself as one's ego's anxieties or as insecurities that is unconsciously felt. I wanted to study ego's effort to overcome anxieties and restrained feelings from the perspective of Freud's Psychoanalytic theories. By expressing restrained feelings in the images of instinctive animals, performing arts bestows freedoms on people's repressed egos, thereby giving them psychological rewards. I examined this process of protecting oneself from ego's discontent and insecurity.

As to the expression method of the works, I employed the method of capturing the true essence of beauty, beyond what appears on the surface, which was used by a famous Chinese monk artist named "Paldaesanin", by projecting my emotions onto animals from a subjective perspective instead of an objective description.

I believe animals and their world, which are subjects of my works, are a microcosm of human society. Law of the jungle and the principl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exist in various forms in human society as well. In my work, I intend to express human emotions and show a range of human relations in a symbolic manner through personification. As to the expression method, I showed the world of the unconscious state using accidental effect. I did so by approaching the work through intrinsic imagery description.